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노동담당
발 신 사무금융노조 홍석환 정책부장 010-9036-4393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김은정 간사 010-8959-7918
제 목 [보도자료] 재계와 금융계의 재벌편향 서명운동에 임직원 등 동원 정황 드러나
날 짜 2016. 1. 20. (여러 공문 포함 총 16 쪽)

보 도 자 료

**재계·금융계, 재벌·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각 회사와 임·직원, 심지어
내방객·보험설계사까지 동원한 정황 드러나(공문 공개)**
**국회 입법권 침해 일삼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재계·금융계
노동조건 악화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사실상 유도·강요**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참여연대, 그리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1/20) 경제단체와 6개 금융협회가 ‘경제살리기(또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속 기업·기관들에게 임직원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촉구한 공문들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공문에는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방자·보험설계사들까지 서명에 동원하고, 일일 서명 현황을 취합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당 서명운동을 두고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느냐”고 했다지만, 실상은 재계와 금융계 및 일부 사용자단체들이 청와대와 교감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펼치는 전형적인 ‘관제 서명’ 이자 ‘여론 공작’의 일환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3, 신년 담화에서 재벌·대기업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5대 노동관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또다시 국회를 압박했다. 그 직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관련 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안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8, “저 역시 국민과 함께 서명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며 직접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뒤흔들고, 재계와 금융계가 이를 따르자 대통령이 다시 화답하는 식이다.

3. 그러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경제단체와 금융협회가 서명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관입주사, 회원사 등에게 서명운동 동참을 요구하고,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14, 서명대상을 특정하고, 서명인원을 매일 취합하여 송부토록 하는 한편, 범국민 관련 현수막을 제작해 부착하라는 등의 실무적인 홍보 내용과 활용방안까지 자세히 안내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2개 참여단체장에게 발송했다(발송 공문 첨부: 별첨자료 1).
4.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협회는 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동부 등 17개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6개 금융협회가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리고 첨부된 서명 양식에 따른 서명지 원본을 1/20 오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발송 공문 첨부: 별첨자료 2). 생명보험협회 역시 전 생보사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회사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실정법으로는 독립 사업자로 되어 있는 보험설계사들까지 대상으로 적시해서 서명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발송 공문 첨부: 별첨자료 3).
5.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서명운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인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쟁점법안이나 악법들의 국회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써먹는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이에 이해관계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있는 재계와 금융계가 서명운동에 나서고 다시 대통령이 서명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대통령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재계와 금융계의 보여주기식 서명운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6. 상황을 종합하면, 사실상 청와대의 청부를 받은 서명운동을 재계와 금융계가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명에 동참하며 마치 일반 국민들의 서명운동처럼 둔갑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알박한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노동개악·재벌특혜 등 악법 강요행위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2016.01.14. 대한상공회의소 발신 공문 :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협조 요청
2. 2016.01.14. 손해보험협회 발신 공문 :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협조 요청
3. 2016.01.15. 생명보험협회 발신 공문 :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협조 요청
4. 2016.01.14. 전국은행연합회 보도자료 : 금융계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동참
5. 2016.01.14.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호소문
6.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 서명운동 안내문·연명부 양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 별첨자료 1. 대한상공회의소 발신 공문 (담당자 개인정보 삭제)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남대문로4가)
02-6050-3454 / @korcham.net / 경제입법추진TF팀 / 000

한 상 회 원 : 제 0038 호

2016. 01. 14

수 신 :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 참여단체장
참 조 : 총무팀(부)장
제 목 :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경제는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돌파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합니다.

3.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 업종별협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귀 기관의 임직원 및 회원사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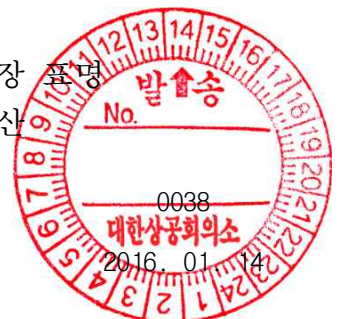
가. 목 적

-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지지입장 표명
-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 촉구를 위한 여론 확산

나. 기 간 : 2016. 1. 14(목)~입법완료시까지

다. 대 상

- 회원사 및 참여단체 임직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 시민·사회단체, 학계, 오피니언 리더 등

라. 추진방안

[협단체 사무국 및 회관입주사 서명]

- 대상 : 협단체 사무국 및 회관입주사 임직원
- 방식 : 직접 서명접수 후 연명부 우편송부

[회원사 서명]

- 대상 : 회원사 임직원
- 방식 : 서명운동 동참공문 발송, 회원사별로 서명접수 후 취합

[회관내방자 서명]

- 대상 : 귀 기관 주관 행사, 교육, 세미나 참석자
- 방식 : 행사 주관부서 협조 후 직접 서명접수

[행정사항]

- 서명인원 일일현황 취합 및 송부(인원 우선 송부, 원본 추후 송부)
-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 현수막 제작 및 회관 부착
- 온라인 서명 홍보 및 동참 유도(사이트구축 후 추후 통보예정)

마. 활용방안 : 대외홍보 및 국회 조속 입법 촉구용으로 활용

바. 문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입법추진TF팀 (담당 : 000)

- ☎ 02-6050-3474, Fax. 02-6050-3700, E-mail. @korcham.net

[유첨] 표제 서명운동 안내문 및 연명부 각 1부.

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수신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전지연구조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 별첨자료 2. 손해보험협회 발신 공문

업 무 연 락

발 신 : 손해보험협회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기획담당부서장
제 목 :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협조 요청
2016. 1. 1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6개 금융협회는 대통령 대국민담화('16.1.13)에 호응하여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협의('16.1.14)하였습니다.

3. 이에 따른 각 사의 서명운동 참여를 요청드리오니, 붙임 양식에 따른 서명지 원본을 '16. 1. 20(수)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대국민 호소문 1부.
2.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 양식 1부. 끝.

손 해 보 험 협 회

직 인 생 략

수신처 : 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동부, 코리안리,
SGI서울보증, AXA, AIG, 더케이, 농협, BNP파리바카디프, 에이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 별첨자료 3. 생명보험협회 발신 공문 (담당자 개인정보 삭제)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6층, 기획부

☎(02)2262-6577 FAX(02)2262-6581

생협기 제53호

2016. 1. 15

수 신 : 전 생보사

참 조 : 기획담당부서장

제 목 :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협조요청(한상회원 제38호)'에 따라 서명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 서명대상 : 회사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

☐ 제출방식 : 우편송부

☐ 제출기한 : 2016. 1. 20(수)까지

☐ 제 출 처 : 기획부 (2262-6577, @klia.or.kr)

첨 부 : 1. 대한상공회의소 관련 공문사본 1부.

2. 서명운동 안내문 및 연명부 1부. 끝.



사단법인 생 명 보 험 협 회
회 장 이 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 별첨자료 4. 전국은행연합회 보도자료 (담당자 개인정보 삭제)

 전국은행연합회	報道資料		은행산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금융단체
	보도일시	배포시부터	
작성일	2016년 1월 14 일	작성부서	기획조사부
담당부장	000 부장(3705-5247)	담당자	000 팀장(3705-5231)

제 목 : 금융계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 민 서명운동’ 동참

□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14일 오후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13일 대통령 담화와 관련하여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조속통과를 촉구하는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음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 붙임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금융권을 대표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전개하는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에도 동참하기로 하고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붙임 :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대국민 호소문 1부. 끝.

이 자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의 ‘은행연소식’ 과 ‘보도자료’ 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 별첨자료 5.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호소문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대국민 호소문

어제 대통령께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금융권도 한국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과거와 달리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던 한국 경제에 대해 외신들은 ‘한겨울의 호랑이’, ‘혼을 잃은 호랑이’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한계에 부딪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 올해는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한데 모아가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과거 짧은 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하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금융권도 힘을 합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혈류의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경제혁신 계획 및 개혁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이 조속히 입법화 되어 우리 국민들 모두의 바램인 안정된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를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니다.

금융권은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 1. 14.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
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 별첨자료 6.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 서명운동 안내
문·연명부 양식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든 국민들의 여망인 안정된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추진본부’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자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연구조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원석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서명 연명부

※ ‘번호’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illegible]